

영친왕의 골프활동에 관한 연구

조상우[†]

호서대학교 골프산업학과, 교수
(2020년 8월 8일 접수: 2020년 8월 29일 수정: 2020년 8월 31일 채택)

The Study of Golf Activities of the King Young Chin

Sang-Woo Cho[†]

Department of Golf Industry
(Received August 8, 2020; Revised August 29, 2020; Accepted August 31, 2020)

요약 : 본 연구는 영친왕의 일본 생활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골프활동을 찾는 것으로 국내 및 일본의 서적, 논문, 학회지, 신문, 각종 잡지, 사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영친왕은 일본 황족 마사코와의 결혼으로 일본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되어 일본 황실의 영향으로 1924년 골프를 처음 배우게 되었고, 1925년에는 일본 황태자가 개최하는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의 골프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1년간의 유럽여행을 떠나며 싱가포르, 파리, 스위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골프 경기는 물론 골프장 시찰, 골프 레슨, 골프 공 제조 공장들을 방문하며 많은 골프활동을 보였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는 경성 군자리골프장 부지, 건설자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 후 일본 고급 직업 장교로 생활하는 기간에는 특별한 골프활동을 보이지는 못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전시 복구 등의 사회적인 여건과 경제적 문제, 1958년부터는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의 골프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제어 : 영친왕, 골프, 시노다, 군자리골프장, 일제강점기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bout unknown golf activities through sociological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Youngchin's life in Japan and the people around hi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King Youngchin was influenced by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to learn golf for the first time in 1924, and participated in golf tournaments in 1925. In 1927, during a one-year European tour, he participated in golf games in Singapore, Paris, Switzerland, England, Belgium, the Netherlands, and Italy, as well as golf course tours, golf lessons, and visiting golf ball manufacturing factories. After returning from Europe, he provided support for the site of Gyeongseong Gunjari Golf Course, construction and operation expenses. However, he did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golf@hoseo.edu)

* 이 논문은 201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0356)

not show any special golf activities during his life as a high class Japanese military officer, and after the Pacific War, he could not find any more golf activities due to social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wartime restoration. There were no more golf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s from 1958.

Keywords : King Youngchin, Golf, Shinoda, Gunjari Golf Course, Japanese colonial period

1. 서론

오늘날 한국 골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골프의 태동기(胎動期)부터 한국 골프발전에 기여한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골프도입은 조선시대였던 1883년 함경남도 원산항에 해관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외국인 세관원들이 상주하던 1897~1900년경에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1]. 당시 조선은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당하였고, 1910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을 당해 국권이 피탈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19세기말부터 조선에서 교육 및 의료사업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려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온 외국인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를 비롯한 개항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려는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이주해왔다[2].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즐기던 생활들을 영유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조선에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골프도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해관원(海關員)들에 의해 1897년경 원산해관에 만들어진 원산해관골프장을 시작으로, 1913년경에는 언더우드 목사가 황해도 구미포에 골프장을 만들었고[3], 1921년 경성 효창원골프장[4], 1924년 대구골프장[5], 경성 청량리골프장과 원산 송도원골프장[3], 1925년 원산 갈마반도 외인촌골프장[6], 1928년 평양골프장, 1930년 경성 군자리골프장, 1932년 부산 해운대골프장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1]. 조선 몇몇 지방에 만들어진 골프장들은 골프장 관리와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구락부를 만들었고, 회원들은 대부분 일본인 사회지도층으로 주로 정계 인사와 일부 조선인 실업가, 조선 귀족 그리고 외국인 사업가들이 활동하였다[7].

경성을 제외한 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들은 대

부분 사유지에 만들어졌지만 경성에 만들어진 효창원골프장(1921년), 청량리골프장(1924년), 군자리골프장(1930년)은 모두 조선 황실의 능원(陵園)이 있었던 곳에 만들어졌다. 이 당시 황실의 제사, 농묘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 등은 이왕직(李王職)이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8] 능원을 관리하던 이왕직이 조선 황실의 재가를 받아 골프장 건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왕직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골프장이전과 건설에 있어서 부지사용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청량리골프장과 군자리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당시 이왕직 차관으로 있던 일본인 시노다(篠田治策)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군자리골프장의 경우에는 시노다가 영친왕에게 간청하여 순종의 왕비였던 순명효황후묘가 있던 30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골프장 건설 자금과 운영비를 영친왕으로부터 지원받았다[9]. 일제강점기 경성 군자리골프장은 조선에서 유일한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으로 조선 골프의 메카이자 총본산이었고, 해방 이후 한국골프사를 말할 때 군자리골프장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에 군자리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한 영친왕이 한국 골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친왕은 일본에서 골프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1년간의 유럽 방문 중에는 골프 아카데미, 골프용품 공장 방문, 골프장 시찰, 현지 프로와 필드 레슨 및 친선 골프 게임을 하는 등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골프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어 골프분야에 대한 그의 행적을 다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친왕은 생애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골프 관련 자료들은 신문 기사와 같이 단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골프활동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친왕의 일본 생활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골프활동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자료 수집과정에서 국내 및 일본 신문, 각종 잡지, 대회 팜플렛, 골프 관련 서류, 영상물, 행정 및 정책 관련 회의록 및 자료, 사진 등의 1차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1차 자료의 미비한 부분은 역사 관련 서적, 조선왕실 관련 서적, 논문, 학회지 등의 2차적 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영친왕의 생애와 골프활동

영친왕의 본명은 이은(李垕)으로 1897년 고종의 7남으로 태어나 1907년 11월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그 해 11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 통감(統監)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손에 이끌려 유학이라는 명분하에 일본으로 보내져 일본 황실교육을 받게 되었다[10]. 그 후 1910년 대한제국 황실은 한일 강제병합으로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황실의 지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 전락하였다. 일본에 가게 된 영친왕은 일본 황족들의 교육기관인 학습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1911년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1911년-1913년)를 시작으로 육군사관학교(1915년-1917년)와 육군대학(1920년-1923년)을 졸업하며 일본 엘리트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11].

일본 황실교육을 받던 영친왕이 언제 골프에 입문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기록이나 신문기사가 없지만 당시 일본에서의 생활을 살펴보면 일본 황실을 통해 처음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는 1917년 7월, 16세의 나이에 골프에 입문하여, 1920년에는 유럽순방 중 영국 에드워드 황태자와 골프경기를 가지고, 1922년에는 에드워드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일영황태자 간에 매치게임도 벌여 일영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가는데 골프가 큰 기여를 했다[12]. 이에 일본 다이쇼(大正) 천황은 1922년 황실 전용 골프장을 만들어 일본 황족들에게도 골프를 권하였고, 1920년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와 결혼한 영친왕은 일본 황족의 대우를 받고 지냈기 때문에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한 1923년 이후에 일본 황족들과 함께 골프에 입문한 것으로 보인다. 영친왕이 일본에서 언제 골프에 입문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

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13]에 따르면 1924년 일본에서 골프에 입문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영친왕이 일본 황족이었던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와 1920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본 궁내성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선 방문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모친 엄귀비, 부친 고종, 선왕이었던 순종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만 조선을 방문하게 하였고, 민심의 동요를 우려해 단기간만 조선에 체류시키고 일본으로 귀국시켰다[14].

한국골프사에서 조선인 골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24년 4월 11일 경성 효창원골프장에서 이항구(李恒九, 1881년-1945년)가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최초의 조선인 골퍼로 확인되었다[15]. 그는 을사오적 이완용(李完用)의 차남으로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은 조선 귀족이었으며, 1924년 4월 20일 창립한 사단법인 경성골프구락부 11명의 이사 중 유일한 조선인으로 경성의 골프장 부지와 건설에 관계가 깊은 이왕직(李王職)의 예식과장이었다[16].

영친왕은 일본에서 골프를 많이 즐기고 있었기에 1925년 4월 일본에서 '제2회 동궁(東宮)컵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다고 한다[17]. 이 대회가 일본 황태자가 주최한 대회이기 때문에 황족의 일원으로 출전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골프에 심취하여 출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골프 입문 2년여 만에 참가한 대회이다. 이 기사를 통해 영친왕이 골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당시 조선에서 골프경기가 일부 특권층에서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는 생소한 소식이었을 것이다.

영친왕은 1926년 4월 순종(재위기간: 1910년 8월-1926년 4월)의 승하로 왕위를 이어받아 의민황태자 영왕(懿愍皇太子 英王, 재위기간 1926년 4월-1947년 10월)이 되었다[11]. 경성 효창원골프장은 순종이 재위하던 1917년 7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18년 5월 확정인가를 받고, 1919년 5월에 착공하여 1921년 6월 개장을 하였다[18]. 효창원골프장은 다시 1924년 4월 청량리로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그해 12월 청량리로 이전하여 운영되다가 1930년 또다시 군자리로 이전되었다[3]. 효창원골프장과 청량리골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던 1919년-1929년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던 시기로[19] 조선왕실의 능(陵), 원(園), 묘(墓)가 있던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 것

은 이왕가로 격하된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대한제국 황제는 왕으로 강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명맥상의 왕위를 가지고 있을 뿐 왕실의 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이왕직과 조선총통부에 의해 효창원골프장과 청량리골프장 건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영친왕은 일본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일본 장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면서도 조선의 골프장 건설에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5년 가을, 영친왕은 유럽 방문을 계획하였지만 순종이 위독하다고 하여 이 계획은 연기되었고,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영친왕은 이왕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20]. 그러자 일본 궁내성은 영친왕이 유럽 방문시 조선 왕으로 대우 받는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였다[21]. 영친왕은 유럽 방문을 지속적으로 열망하고 분노를 표출하였지만, 1926년 12월 다이쇼 천황이 별세하여 장례식이 끝나는 2017년 2월 7일 이후에 가서야 이왕직 차관 시노다의 도움으로 궁내성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19]. 시노다는 영친왕과 결혼한 이방자 여사를 모시던 사무관(事務官)으로, 이후 조선의 이왕직 차관(1923-1931), 이왕직 장관(1932-1940), 경성제국대학 총장(1940-1944)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조선 골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22].

영친왕은 1927년 경성골프구락부의 명예총재가 되었는데[23], 이 당시 영친왕이 조선을 방문한 것은 순종 1주기를 맞이하여 4월 5일 조선을 방문하여 4월 20일 경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정[24]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하여 명예총재로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일본골프협회가 1927년부터 시작한 일본 아마추어동서대항골프대회(關西·關東)에 트로피를 하사하고, 유럽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25].

영친왕의 공식적인 유럽 방문 목적은 세계 1차 대전 전적지를 시찰하는 것이었지만, 영친왕은 상해, 홍콩, 싱가포르, 콜롬보, 이집트 등지를 거쳐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유럽 주요 국가의 도시를 방문하여 전적지는 물론 박물관, 병원, 대학, 음악당, 미술

관, 성당 등 다양한 곳들을 시찰하였다[26]. 그러나 영친왕을 보좌하며 유럽 여행에 동행한 이왕직 차관 시노다의 일기 '歐洲御巡遊隨行日記'에 따르면, 영친왕은 이상의 방문활동 외에도 특히 골프장이 있는 도시에서는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었다. 골프 라운딩은 이방자 여사를 포함하여 유럽 여행을 동반한 시노다 일행, 그리고 방문한 골프장 소속의 프로골퍼와 라운딩을 돌며 레슨을 받기도 하였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방문 도시 주변의 골프코스를 둘러보기도 하였으며, 골프 아카데미와 던롭 골프공 제조 공장까지도 방문하여 골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27].

〈Table 1〉은 [27]을 분석한 것으로 영친왕의 유럽여행 중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영친왕은 8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8]의 신문 기사에서도 8월 3일 일영미 3국이 참가하는 골프 시합에 사이트 총독이 기증한 우승컵 수여식에 영친왕이 참석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Fig. 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던 사이트 부부와 영친왕 부부가 같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다[29]. 이상의 일기, 신문기사, 사진의 내용이 모두 각각 다른 출처였지만 일정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시대를 거슬러 올라 간 영친왕의 골프활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친왕은 영국에서는 골프의 발생지로 불리워지는 스코틀랜드 지역의 세인트앤드루스, 에딘버러, 글래스고 지역과 잉글랜드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방문하였는데[26], 8월 29일 세인트앤드루스 골프장에서서는 현지 골프 프로와 레슨을 받으며 라운딩을 하였고(Fig. 2), 8월 31일에는 트론골프장에서 수행원들과 경기하여 시노다 107타, 영친왕 121타, 엠택 대좌 124타, 사또 중좌 137타로 영친왕이 골프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 실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27].

〈Fig 3〉은 영친왕이 유럽 여행 중 갑판 위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모습이 조선의 신문에 소개된 것이며[31], 〈Fig 4〉는 이방자 여사가 갑판에서 데크골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유럽여행을 선상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영친왕과 함께 갑판골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27].

Table 1. King Young Chin's golf-related schedule during his trip to Europe

Schedule	Content
05-Jun, 1927	British golfer Mr. Rodgers, who is on board to compete in the Open Championship in Hong Kong and Scotland, is asked to take lessons from the King and his wife
09-Jun	Golf Rounding in Singapore
10-Jun	Deck golf match on Ship
7-July	Golf Rounding in Lavory Golf Club, Paris
15-July	Golf Rounding in Paris
03-Aug	Visit a golf course in Geneva, Swiss
17-Aug	Visiting Addington Golf Club, UK
21-Aug	Visit the New Sleigh Golf Club to donate the championship cup to the United Embassy and Naval Soldiers Union Match, UK
23-Aug	Visit the Golf Academy in London, UK
27-Aug	Visited Glen Golf Club in Scotland, UK
29-Aug	King Yeongchin was golf rounding with local pro golfers at the St. Andrews Golf Course in Scotland, UK: Shinoda(116 strokes), Kim Eung-seon(118 strokes), Sato(more than 118 strokes)
30-Aug	Golf rounds at St Andrews Golf Course and Glen Eagles Golf Club in Scotland, UK
31-Aug	Golf Rounding in Troun Golf Club in Scotland, UK : Shinoda (107 strokes), King Yeongchin (121 strokes), Pedestal (124 strokes), Middle left (137 strokes)
01-Sep	Golf Rounding in Prestwick Golf Club in Scotland, UK
03-Sep	Golf Rounding in Turnberry Golf Club in Scotland, UK
07-Sep	Visit the Royal Golf Club and Horumusby Golf Club in Scotland, UK
09-Sep	Golf Rounding in Addington Golf Club in Scotland, UK
11-Sep	Practice golf at Golf Range in London, UK
12-Sep	Visited a golf ball manufacturing plant in Dunlop, Birmingham, UK
03-Oct	Golf rounding in Paris, France
09-Oct	Golf rounding with his wife in Paris, France
14-Oct	Donate the Golf Cup to the La Bori Golf Club, King Yeongchin.
19-Oct	Visit the Royal Golf Belgian Club in Belgium
27-Oct	Visit a golf club in the Hague, Netherlands
26-Dec	Golf Rounding in Rome, Italy
11-Feb, 1928	Visit a golf club in Nice, France
17-Feb	Golf rounding in France
22-Feb	Visit a golf club in Cannes, France
24,26,27-Feb	Golf rounding in Nice, France
15-Mar	Deck golf match on Ship



Fig. 1. The King of Youngchin and the Saito Governor-General in Geneva, Switzerland (1926)[29].



Fig. 2. King Young Chin at St Andrews Golf Course(19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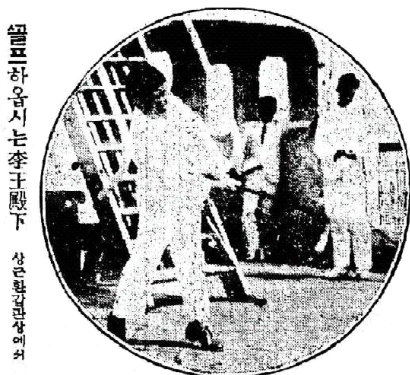


Fig. 3. King Yeong Chin golfing on board while traveling in Europe(1927)[31].



Fig. 4. King Young Chin's wife played deck golf on ship(1928)[27].

1928년 5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영친왕의 그 다음 골프 관련 행보는 군자리골프장 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다. 영친왕은 청량리골프장이 장소가 협소하여 18홀 정규골프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왕직 차관 시노다의 간청을 받아들여 골프장 부지로 30만평의 황실 소유의 땅과 골프장 건설 자금 20,000엔 그리고 3년 동안 5,000엔의 운영비를 하사하여 군자리골프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8]. 영친왕은 항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이왕직 장관이나 차관이 6개월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하여 이왕가에 관련된 일들을 보고하였고, 매년 400,000엔 정도를 조선총독부로부터 송금 받아 일본 황족들 보다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에 이르는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20] 마음만 먹는다면 골프장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친왕이 군자리골프장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시노다와의 인간적인 관계와 유럽 여행에서의 골프 관련 행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노다는 1924년 경성골프구락의 초대 감사를 지냈고, 청량리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왕직 차관으

로 있으며 골프장 부지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조선 골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19]. 그러던 시기에 시노다는 영친왕이 소망하였지만 계속 미루어지던 유럽여행을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심사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유럽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6]. 그리고 영친왕은 유럽 각 나라에서 골프를 즐기고 골프장을 시찰하며 경성골프구락부의 명예총재로서 조선에도 수준 높은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던 시기에 마침 시노다가 군자리골프장 건설에 지원을 요청하여 영친왕도 지원을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곳이 영친왕 모후의 무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터 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곳을 파헤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당시 유교적 사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다[3].

영친왕은 유럽에서 돌아 온 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고급 직업장교의 길을 가며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26]. 그러나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군부대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골프활동에 참가했다는 기록은 한국과 일본의 관련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는 1938년 4월 21일 군자리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는 당시 신문 기사가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32]. 그러나 영친왕이 조선 방문 때마다 군자리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고는 전해지고 있으나 조선 방문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었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며 쇼와 천황도 골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영친왕이 일본에서 골프를 즐기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40년 12월 8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일본골프협회는 골프경기의 개최를 보류하도록 지방 협회와 골프장에 통지하였고, 1942년 10월 7일에는 일본골프협회를 해산시켰기[33] 때문에 영친왕도 일본과 조선에서 더 이상 골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당시에는 일본의 골프장들은 복구가 되지 않아 골프활동이 중단되어 있었지만 1946년을 넘어서면서 골프장 복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48년이 되어서야 미군의 호의에 의해 골프대회도 부활되었다[34].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인하여 영친왕은 그 동안 누려왔던 모든 지위, 직업, 재산 등을 상실하고 황족의 신분도 내려놓게 되어 평민이 되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만 점점 줄어들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35].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 경제적 사정과 사회적 배경이 허락되지 않아 골프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패망 이후, 영친왕의 골프활동 모습은 <Fig. 6>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Fig. 6>은 일본 황실 국영친목회(菊榮親睦會)의 기념사진으로 영친왕은 앞줄 왼쪽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36]. 이 친목회는 일본 황족과 구황족의 친목 단체로 1947년 10월에 만들어져 황족의 경사가 있을 때에 만나는 모임이었으며, 영친왕도 이 모임의 회원이었다[37]. 이 모임에서는 회원들의 친선 골프경기도 개최하였는데, 이 사진은 일본 황태자가 하사한 트로피와 함께 일본 경매에 나왔던 것으로, 대회가 끝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Fig. 5. King Young Chyn at Gunjari Golf Course(1930s)[30].



Fig. 6. King Young Chin at the Japanese Imperial Golf Social[35].

보인다. <Fig 6>을 촬영한 시기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사진 속의 영친왕의 모습은 1950년대 초반에 찍은 다른 사진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영친왕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음을 짐작해 보지만 얼마 후 1958년 뇌혈전으로 쓰러져 신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를 영친왕의 마지막 골프 활동으로 봐야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영친왕의 일본 생활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골프활동을 찾는 것으로 국내 및 일본의 서적, 논문, 학회지, 신문, 각종 잡지, 사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영친왕은 일본 황족 마사코와의 결혼으로 일본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되어 일본 황실의 영향으로 1924년 골프를 처음 배우게 되었고, 1925년에는 일본 황태자가 개최하는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의 골프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1년간의 유럽여행을 떠나며 싱가포르, 파리, 스위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골프 경기는 물론 골프장 시찰, 골프 레슨, 골프 공 제조 공장들을 방문하며 많은 골프활동을 보였다.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글렌골프클럽, 세인트앤드

류스골프클럽, 트룬골프클럽, 프레스윌골프클럽, 애딩턴골프클럽 등 명문 골프클럽들을 방문하여 유럽여행이 마치 골프여행과도 같이 보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는 경성 군자리골프장 부지와 건설자금 20,000엔과 3년 동안의 운영비를 매년 5,000엔씩 지원해 주었다. 그 후 일본 고급 직업 장교로 생활하는 기간에는 특별한 골프활동을 보이지는 못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전시 복구 등의 사회적인 여건과 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있었고, 1958년부터는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의 골프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0356).

References

1. S. W. Cho, "The Establishment of Golf Clubs and Founding and Activities of the Chosun Golf Association During Japanese Occupation", *Korean Journal of Golf*

- Studies*, Vol.9, No.3, pp.69-80, (2015).
2. S. W. Cho, S. A. Kang, S. Y. Kwak, "A Socio-historical Study on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Golf Course in Wonsa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26, No.4, pp.75-84, (2012).
 3. S. W. Cho, Y. H. Shin, S. Y. Kwak, "A Study on Kyungsung Golf History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2, No.5, pp.1-11, (2013).
 4. Dongailbo, Established in Hyochangwon, a New Park in Yongsan. Dongailbo, Dec 14, (1921).
 5. Maelshinbo, Daegu Golf Course Opening Ceremony. Maelshinbo, Sep 3, (1924).
 6. Maelshinbo, Prosperity of Foreign Villages in Wonsan. Maelshinbo, July 31, (1925).
 7. Gyeongsung Golf Club, *Member List*, pp3-54, Gyeongsung Golf Club, (1939).
 8. Y. S. Lee,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Joseon and the role of Office of Yi Royal-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 Culture*, Vol.40, pp.315-342, (2007).
 9. Korea Golf Association. *Korea Golf Company 1900-1984*. pp.40-41, Korea Golf Association, (1985).
 10. B. J. Jung. *Descendants of the Empire*. pp.28-40, Taurus, (2006).
 11. Prince Uimin. wikipedia[Online]; Creative commons, Posted July 22, 2019.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B%AF%BC%ED%83%9C%EC%9E%90> (accessed Sep 7, 2019).
 12. Teikoku Databank Historical Museum Home Page. <http://www.tdb-muse.jp> (accessed July 7, 2019).
 13. S. W. Cho, King Youngchin and Golf. *Golf Digest*, September, 2018, pp.58-59.
 14. Y. W. Kim. *King Youngchin, the last prince of Joseon*. pp.72-90, Paper road, (2010).
 15. Dongailbo, The theft in Jongmyo was the first in 500 years. Dongailbo, Apr 13, (1924).
 16. Chosunilbo, Residents in Seokgot are Dissatisfaction due to a Car. Chosunilbo, Oct 8, (1924).
 17. Maelshinbo, King Lee Participated Golf Game. Maelshinbo, March 23, (1925).
 18. H. Son, A Study on Developmental Process of Golf Courses in Korea before the Independence of 1945,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5, No.4, pp.1-11, (2006).
 19. B. K. Yum,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y of Public Inspection Officer in the Early Era of Culture Sovereignty",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Vol.28, pp.223-260, (2012).
 20. W. H. Song. *The Last Prince4*. pp.140-169, Blue History, (2012).
 21. Y. J. Kang, J. H. Kim. *I am Masako Lee, the last prince of the Korean Empire*. pp.169 Communication Books, (2013).
 22. Shinsaku Shinoda. wikipedia[Online]; Creative commons, Posted Jun 2, 2019.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85%B8%EB%8B%A4_%EC%A7%80%EC%82%AC%EC%BF%A0 (accessed Jun 7, 2019).
 23. W. Y. Nam, Seoul Hanyang CC and Lee Soon-yong. *Herald Economy*, Oct 21, (2015).
 24. Chosunilbo, *Return Yangjeonha of Changdeokgung Palace on Apr 5*. Chosunilbo, Mar 12, (1927).
 25. Y. J. Choi. *50 years of Seoul Country Club, 40 years of Hanyang Country Club*. pp.136-144, Seoul Country Club, (2004).
 26. Y. Otabe. The Last Woman of Nakseonjae. pp.236-253, Dongailbosa, (2009).
 27. S. Shinoda. *Diary of the European Imperial Parade*. Osakaya Bookstore, (1928).
 28. Chosunilbo, Japanese-English-American Golf Game. Chosunilbo, Aug 5, (1927).
 2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ome

- Page. www.history.go.kr (accessed Mar 6, 2019).
30. Korea Golf Association. 100 years of Korean golf. pp.82-83, Korea Golf Association, (2001).
 31. Dongailbo, King Lee who plays Golf. Nov 10, (1927.)
 32. Dongailbo, King Lee and his wife visited his younger Brothers. Dongailbo, Apr 22, (1938).
 33. Japan Golf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jga.or.jp> (accessed Dec 15, 2019).
 34. S. Honda, *The Mistress of the Crown Prince, Lee Bangja.* pp.186-205, Beomwoosa, pp.186-205, (1989).
 35. Auction Free Home Page. <http://www.aucfree.com> (accessed Jun 5, 2018).
 36. Kikuei Fellowship. wikipedia[Online]: Creative commons, Posted Jun 12, 2018. <https://ja.wikipedia.org/wiki/%E8%8F%8A%E6%A0%84%E8%A6%AA%E7%9D%A6%E4%BC%9A> (accessed July 26, 2019).